특별기획

북한의 주거생활

북한의 주택건설 현황과 사회계층별 주택실태

북한은 6·25 동란 중 약 60만호가 완전히 파괴되어 극심한 주택난에 직면하자 휴전 후부터 주택건설에 치중했다.

북한은 파괴된 도시의 복구건설을 위해 휴전직후에는 평양을 비롯한 도시건설에 주력했으며 농촌 주택건설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 되었다.

북한 당국은 주택복구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집단화하고 밀집화하기 위해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의 방침에 따라 도시에서는 고층아파트화, 농촌에서는 연립주택(2층 2~3세대용)의 조립식공법을 도입하여 건축하는 등 주택의 획일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도시 건축물의 특징은 3층에서 6층까지의 아파트 건물과 공공건물을 도로변에 건설함으로써 허술한 건물들을 건물 뒤편에 은폐하려는 겉치레식 건축 방식을 취하는데 있다.

주택양식은 「민족적 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는 당의 시책에 따라 감시와 통제 상호견제 그리고 노력동원의 편의 등이 고려되었다.

북한에서의 건물은 개인소유가 없으며 개인건축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개인의 기호나 개성에 맞는 설계란 불가능하다. 다만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가옥 또는 아파트를 임대형식으로 할당받아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을 뿐이다.

북한은 최근 도시에 5층~10층의 아파트를 짓고 농촌에는 2층의 연립주택을 대량으로 건립함으로써 집단주의 생활양식을 강화하여 각종 동원과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 있으며 규격화된 도시풍경안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사고마저 규격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공동관리의 생활 공간에 지나지 않는 북한의 주택양상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생활이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계층에 따라 주택의 규모와 시설내용을 달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심리를 자극시켜 계층 상승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당의 지시에 순종하도록 하는 통제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주택건설

6·25동란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의 시기별 주택건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후복구시기(1954~1960)

북한은 6·25동란시 약 60만호의 주택들이 완전히 파괴되어 주택난에 직면하자 휴전후 복구건설을 위해 본격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전개했다.

1957~60년까지 5개년계획기간 중 40만세대분의 도시주택과 20만세대분의 농촌주택의 건설을 계획하고 국가예산의 기본건설액 중 13.4 퍼센트를 주택건설자금으로 배당하였으나 5개년계획 자체의 큰 차질로 인하여 1959년 당시 15만 2,000세대분의 주택건설에 그치고 말았다. 그 결과 6·25동란 이후 1959년까지 북한에서 건설된 총 주택수는 도시주택 14,142,000입방미터, 농촌주택이 12,706,000입방미터로서 6·25동란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 기간 중 건설된 건물들은 대부분이 날림공사로 알려져 있다.

7개년계획기간(1961~69)

북한은 1966년 10월 10일 개최된 노동당 대표자 회의시 7개년 계획을 3년간 연장하는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주택건설에 투자된 자금과 자재

의 부족은 모든 주택공사에서 날림공사를 모면할 수 없게 하므로 현시점에서는 주택의 신축보다는 이미 건축된 건물들에 대한 보수공사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7개년계획 중 주택건설은 1961~6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후에는 군사력 강화에로 정책이 전환

됨에 따라 진행이 둔화되었다.

기간 중 북한이 발표한 주택건설 실적은 도시주택이 844만 입방미터, 농촌주택이 759만입방미터로 나타나고 있어 7개년계획 완료시기에는 북한의 주택사정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기본적인 1인당 주거면적 보장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6개년계획기간(1970~77)

북한은 5차 당대회시 6개년계획 기간 중 도시 및 농촌에 100만세대분의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평양시내에 대한 중앙난방공사의 완료를 비롯하여 청진·송림·나진시 등에 대한 중앙난방공사를 착공하였고 평양반경 80킬로미터 및 기타 도시반경 40킬로미터에 대한 도로포장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1978~84)

북한은 2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 중 매년 20~30만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것을 계획했으나 그들의 발표로도 미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기간 중 북한은 부족한 주택을 보충하기 위하여 1980년 10월에는 평양시내 중심가인 「창광거리」변에 고층 아파트(3萬㎡)를 건립한데 이어 1981년 1월부터 대동강구역의 「문수거리」변에 1만여세대분의 다층주택을 건설 중에 있고 청진시·양산도 등 일부 지역에서도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배정

주택배정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된 각급 주택을 임대형식으로 배정함으로써 주택소유에 대한 「자본주의적 요소」를 배제시키고 있다.

일정한 주택 분양원칙은 없으나 새로 건설되는 비교적 현대적인 문화주택(塔式)은 시급 이상의 장·과장, 3급기업소 기사장 등의 간부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그 우선순위는 유가족세대, 후방가족 당원 및 간부가족, 일반노동자, 농민, 월남자가족, 불순계층순으로 하고 있다.

1973년말 현재 주택배정에서 동거세대(방한칸의 곁방살이)가 전체주민의 30퍼센트, 독립세대(배정된 주택의 방 1~2개를 전부 사용하는 세대)가 70퍼센트의 비율로 추정된다.

주택보급율

북한의 주택보급율은 총세대수를 주택수로 환산해 볼 때 전주민의 65퍼센트에 불과한 수준이다. 때문에 1세대용 아파트에 2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노동자가 다른직장으로 배치되면 최초 2~3개월간은 남의집 방1칸에 임시로 기거하게된다.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주택배정을 받지 못해 2~3년간은 각기 합숙소에서 별거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주택난이 가중되어 있다.

주거이전

북한에서는 주거이전의 결정권이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관리 및 입주 배정권도 시·군 인민위원회 도시경영사업소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배정은 노동당에서 일방적으로 직장부근 중심으로 이사절차(시·군 사회안전부의 퇴거수속, 시·군 행정위원회의 이동증발급, 주택관리소의 주택상태 확인)

와 입주절차(직장과 도시 경영부와의 조정, 교환, 주택배정) 등에 따라 배치하고 있어 개인적 사정에 의한 주거지의 이전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거주지 이동 통제는 대부분이 정치적 이유에서 강제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북한은 1958~60년간 중앙당집중 지도사업이라는 명목의 정치사찰과 1963~64년간 주민등록사업을 통해 개성 등 휴전선 일대의 원주민과 반당계층으로 숙청된 자들의 연고자들을 집단적으로 압록강 및 두만강 지역의 오지로 이주시킨 바 있다. 현재도 계속 반김일성 세력으로 축출되는 자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평양을 「깨끗한 혁명의 국제도시」로 만든다는 구실아래 지체부자유자, 난장이 등까지 색출하여 함경북도 오지로 집단 강제 추방하였고 유사시에 주민동요를 막는다는 구실을 붙여 「성분 불순자 계층」과 과부들까지 평양시 밖으로 추방하였다.

주택의 소유권 및 사용료

북한은 8·15해방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6·25동란 이후 새로 건립한 독립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국가소유 또는 공공단체소유로 인정하고있다.

북한은 개인 소유의 구옥에 대한 매매행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직장배치에 따라 이주하게 되었을 때에 거주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할당되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가옥에 대한 매매 행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구옥은 사유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물수리 등 일체의 관리를 국가의 주택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건물은 건물 관리상으로도 사유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결과적으로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권은 있을 수 없으며 거주시 관리자의 주의의무만 부과될 뿐이다.

북한의 노동자나 사무원들이 부담하는 주택사용료는 생활비 지출에서 0.3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며 연료비 및 기타 사용료를 포함해도 세대당 생계비의 3퍼센트 내외라고 한다.

가정연료

각 가정연료는 주로 석탄, 나무이며 1970년대 이후에는 석유 및 전기가 도시에서 일부 낮은 수준으로 연료에 이용되고 있다.

연료의 공급은 대부분 배급에 의하며 일부는 구매하기도 한다.

가정연료의 종류별 이용실태와 1950년 이래 연료사용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농촌의 주택

농촌의 주택문제는 도시에 비해 격차가 심하다.

북한에서는 철도변이나 도로변에 있는 기존의 농촌주택을 기와로 지붕을 이어서 이것을 농촌 문화주택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농촌주택은 흙벽돌을 쌓고 바깥에 흰 석회칠을 한 것들이며 도로나 철도로부터 떨어진 지역에서는 아직도 초가에서 생활하고 있다.

북한의 농촌건설은 1956년에서 59년 경까지 시범적으로 협동농장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건설하였으나 선전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였다. 1964년 2월 김일성은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고 농촌에 대한 도시인의 지원을 강요하였지만 건축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

것은 평양을 비롯한 도시의 건설에만 치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주택건설은 「국가예산」으로 건설한 반면 농촌주택은 협동 농장이 주체가 되어 농장원들의 수입금에서 공제한 건설기금으로 충당한 때문이고 따라서 농촌의 주택건설은 도시의 그것보다 속도면에서 볼때 극히 완만하였다.

북한의 농촌주택건설은 1962년 각 군마다 조직된 농촌건설대에 의해 본 궤도에 올랐는데 농촌의 「문화주택」 건설을 위하여 각 협동농장에서는 총수입금 중 10~25퍼센트의 건설기금을 공제당한다.

새주택 입주순위는 이당 간부, 협동농장 관리위원회 간부, 작업반장, 분조장, 열성당원, 일반 농장원의 순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농촌주택 건설을 대도로, 철도연선, 해안선 등의 평지대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점차 산간지대로 옮기도록 선후를 가리고 있다.

농촌에 건설된 선전을 위한 전시용 문화주택이 사리원, 중화 등 특수 지역에 건설되었으나 그 수가 매우 적다. 최근에 이르러 농촌의 경우에도 집단농장의 형태에 따라 집단적 경영을 위하여 종래에 지은 농가들을 허물고 주거 양식을 소규모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식으로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은 안정된 생활의 공간이라기보다 합숙소나 수용소와 같으며 한국적 의미의 정서가 있는 주거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농촌주택건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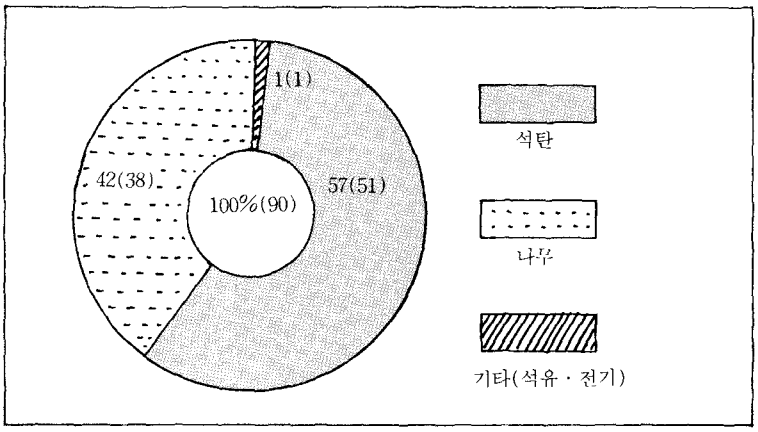
북한은 7개년계획 중 60만동의 농촌문화주택건설 목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1962년 「농촌건설대」를 조직하였다.

1962년 12월 당시 100~200명을 1개조로 하는 농촌건설대가 185개 조직되었는데 이들 농촌건설대에는 2,897명의 미장공과 10,435명의 각종 기능공이 배치되어 군단위로 농촌주택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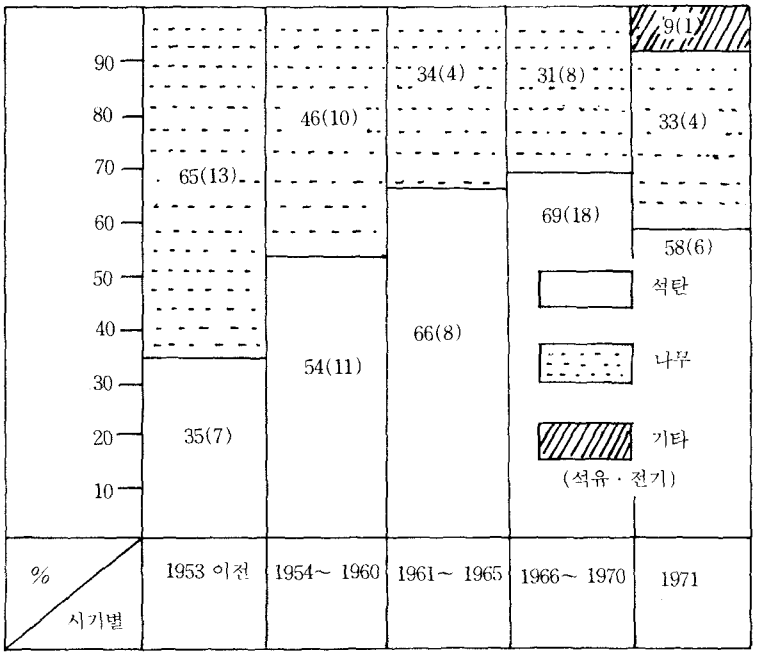
북한이 농촌건설대를 조직한 것은 1962년도의 목표인 10만동의 농촌주택건설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건설목표는 6·25동란 이후 8년간에 걸쳐 건설한 주택수의 1·4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농촌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가정연료



시기별 가정연료 사용변천



농촌건설대의 운영은 1인 5세대운동을 기초로 하여 추진되었는데 공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초, 벽체, 목공, 지붕, 미장, 마감공 등 6명을 1개 작업반으로 하여 흐름식 공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북한은 이와 같은 농촌주택건설을 제도화 하기 위하여 1962년 4월 9일, 농촌문화주택 건설 부문 일꾼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62년 10월에는 내각결정 51호에 의거하여 「근위농촌건설대」라는 칭호를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계획을 질량적으로 초과수행할 것.

② 주택이 해당 지역의 기후적 특성에 맞고 기술규정에 적용토록 할 것.

③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합리화시킬 것.

④ 건설자료를 지방자체 내에서 해결할 것.

⑤ 기계 이용율의 제고와 건설속도를 촉진할 것.

⑥ 기술수준을 제고시키며 노동재해를 근절할 것.

⑦ 건설물의 원가를 경감시킬 것.

⑧ 공산주의 도덕 기풍을 확립할 것.

이밖에도 북한은 농촌주택건설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13~15만명의 학생·부녀자·사무원 등을 강제동원 시킨바 있다.

농촌주택을 건설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은 건설자재를 지방별로 자체해결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농촌주택건설을 부진케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농촌주택의 소유권 및 사용료

농촌지방에 새로이 건설된 문화주택들은 협동소유 또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며 입주자에 대해선 도시아파트와 달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6개년계획 기간 중 3대기술혁명의 일환으로서 농촌에 대한 국가적 자금지원을 증액할 것이며 이 자금으로 부족한 주택건설과 농업의 기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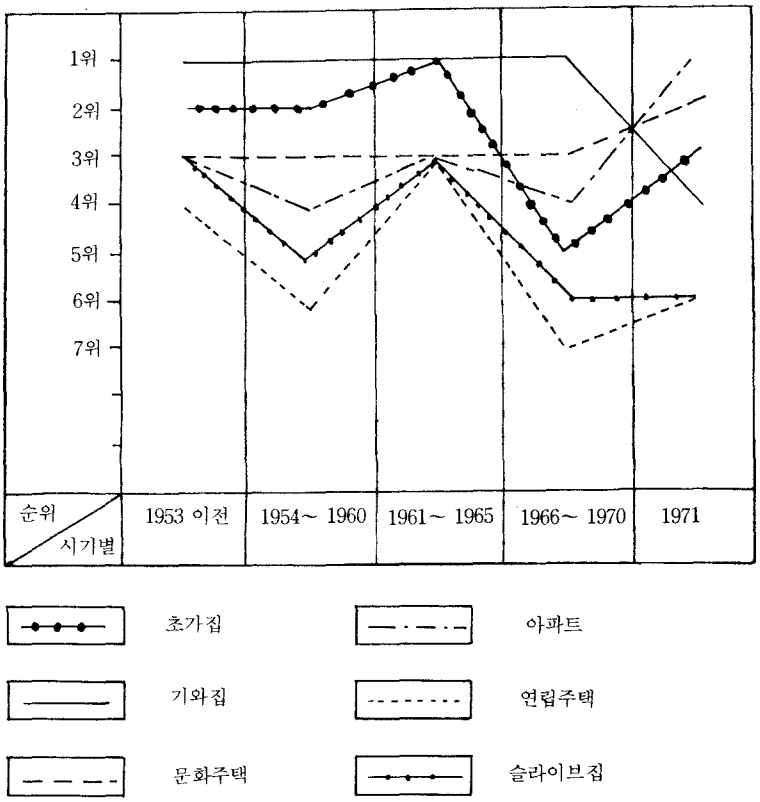
주택사정

북한사회의 주택들은 자료의 부족, 기술의 낙후, 생활수준의 억제 등으로 주택규모도 10평 내외로 협소한 편이고 주택의 질적 수준도 상당히 뒤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주생활에 대한 당국의 정책으로서 주택관리상태를 검사한다는 명목 아래 「위생검열」, 「20호검열」등을 실시하고 「불합격증」을 부착한다든가 벌금을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주생활에 심한 간섭과 통제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1966년 이후 기와집과 연립주택이 감소되는 반면 아파트와 농촌문화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1950년대 이래 북한 가옥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옥 형태



도시주택

북한은 6·25동란 이후 파괴된 주택복구건설을 위해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 중·소도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도시주택은 대로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회색 시멘트기와와 함석지붕에 흰색으로 벽을 칠한 것들이다.

새대당 거주 면적은 8~12평이고 신축 아파트는 15평 정도이다.

건축양식은 일률적으로 시멘트조립식이며 주택의 상·하수도 시설은 불량하고 목욕탕과 변소는 동당 1개씩 설치되어 있다.

① 평양시 아파트:북한은 평양시의 기존 아파트 건물의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70년 「노동당 5차 대회를 경축하는 범인민운동」을 통해 평양시내 김일성대학으로부터 보통강운하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 신시가지 건설공사를 실시하고 6개월 동안에 서성거리, 비파거리, 천리마거리 등을 건설했으며 이일대에 고층 건물의 신형 아파트와 호텔 등을 세운 바 있다.

북한의 기존 아파트 건물은 대부분 세대당 거주면적이 8~12평으로 방 1개, 부엌 1개, 마루방 1개에 공동변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들은 5인가족의 일반 근로자와 사무원이 대부분이었으나 신축 건설된 평양시내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는 세대당 거주면적이 15평 내외로 각 세대별로 방 2, 베란다 시설과 목욕탕, 변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당 과장급 이상과 정무원국장급 이상. 그리고 대학교수 및 문예인 간부들이 입주하고 있다.

평양시내 중심가의 신축 아파트들은 평양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수로서 중앙난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거리 수송시 온수의 온도는 80℃이며 중간 송수장치가 되어 있고 온수의 온도를 올리기 위한 가열장치가 설비되어 있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개성, 사리원을 비롯한 중·소도시에도 건설되고 있으며 크기와 내부구조가 동일한 것은 모두 조립식 공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② 중·소군시의 아파트:개성·사리원 등 북한의 중·소도시의 도로변에 3~4층의 서민용 아파트를 건설하고 기본적인 현대도시의 면모를 갖추려 하고 있으나, 이들 중·소도시의 아파트는 상·하 수도 시설이 미흡하고 각종 건축자재의 질과 시공과정에서의 공정이 부실한 편이다.

③ 조립식 아파트건설:북한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고층 아파트들은 모두가 조립식건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 아파트 건설에 조립식공법을 도입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규격화된 건물을 건설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62년 당시 조립식 건축자재의 생산능력을 올리기 위하여 연간생산 100만입방미터의 생산능력을 가진 블록공장이 40여개에 달하였으며, 이밖에도 각종 건축자재 생산공장이 270여개에 달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6개년계획 기간 중 보다 원활한 건축자재의 공급을 위하여 신규로 지방 시멘트 공장을 건설했다.

다음 표는 북한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구조 및 소재 현황이다.

사회계층별 주택실태

북한의 주거형태는 입주자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그 구

아파트

명 칭	소 재	동수	동 당 세대수	입주자성분	세대당 가옥 구조	평 수
	함남신흥군 신 흥 읍	30	30	당행정기관 간 부	방1, 부엌1	10
	함 흥 시		50	〃	방2, 부엌1, 공동변소	14
	평 양 시		100	〃	〃	18
	개성지역 전 동	1	100	고 급 간 부	방3, 마루1, 부엌1, 변소1	13
개 성 노동자APT	개 성 시	5	400	노 동 자	방1, 부엌1, 공동변소	6
역 전APT					방2, 부엌1, 변소1	13~15
고 참 탄 광 APT	명 천 군 고 참 리			노 동 자	방2~3, 부엌1, 변소1	20

※ 당·행정기관 중견간부급 및 군관:방2, 부엌 1, 마루 1, 변소겸 창고 1:12평~15평
일반노동자사무원:방 1~2, 부엌 1, 공동변소:7~10평
아파트는 직장별배정표에 의해 결혼 2~3년후에 입주함.

연립 주택

시기	명 칭	주 소	동수	동 당 세대수	입주자성분	세대당 가옥 구조	평수
71~	문화주택	함남 신흥군 신흥읍		4	노동자, 농민	방 1, 부엌 1, 공동변소	10
		유대포리	40	7	〃	방 2, 부엌 1, 공동변소	13
○ 연립주택은 주로 중소도시 및 농촌에 건설 ○ 일반노동자 및 농민이 주로 입주 ○ 가옥구조는 방1~2, 부엌1, 공동변소 : 7~10평							

북한의 계층별 주거형태

호수	주 택 형	가 옥 구 조	입 주 자	비 고
특호	○단독고급 주택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정 원 ○냉온방장치, 수세식변소	○당및정무원부부장급이상 ○인민군 소장 이상	○고급수입건재사용
4호	○신형고층 아파트	○방 2~3개 ○목욕탕겸 수세식변소 ○냉온수시설	○중앙당과장급이상 ○정무원국장급 이상 ○인민배우, 공훈 예술인 ○대학교수 ○기업소책임자 ○인민군대좌	○세대당15평정도
3호	○중급단독 주택 및신 형아파트	○방 2개 ○부엌, 창고	○중앙기관 지도원 ○도급기관 부부장 이상 ○기업소 부장 ○인민학교·고등중교장 ○인민군중좌	
2호	○일 반 아 파 트	○방 1~2개 ○마루방 1, 부엌 1	○도급기관 지도원 ○기업소 과장급 ○천리마 작업반장 ○시군급기관 과장 ○인민학교·고등중교원 ○인민군 대위 ○노력유공자	○세대당10평내외 ○공동목욕탕, 변소 ○전체가옥의30%
1호	○집단공영 주택및구옥 ○농촌문화 주 택	○방 1~2, 부엌 1 ○방 2~3의 기존구옥 ○단층연립주택 ○방 2, 부엌 1, 창고 1	○말단근로대중 ○말단사무원 ○변두리 협동원 ○협동농장원	○상하수도시설 불비 ○초가를기와로개축 ○최근 2~3층으로 증축

조를 달리한다. 따라서 주택을 보고 그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다. 주택형을 호수로 구분하면 특호(단독 고급 주택), 4호(신형 고급 아파트), 3호(중류 단독 주택 및 신형아파트), 2호(일반 아파트), 1호(집단 공영 주택 및 구옥)로 나눌 수 있다.

① 특별 주택:부부장급 이상의 고위 당간부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며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① 부부장급(단층건물과 아파트)

② 부장급(단층 또는 2층의 단독주택)

③ 부총리급(2층 단독주택)

부부장급의 고위층 아파트는 온돌방 2, 마루방 1(응접실 겸용) 다다미방 1, 창고, 목욕탕, 수세식 변소 등 모든 부대

계층별 주택규모

구분	입 주 자	규 모
상류	상·부상급	단독주택 평균방3개 이상
중류	중간간부급	방 2개, 12~15평
하류	노동자 사무원	방1 ~2개, 7~10평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부총리급 주택에는 정원, 분수, 온실까지 있다. 특별주택 규모는 대지 300~500평에 건평 200평정도로 3층구조이며 경비병력 1개분대와 간호장교 1명이 배치되는 외에 전용요리사 2명, 식모 2명, 운전수 2명, 경리원 1명이 배속되어 있다.

특별주택의 비품으로는 응접세트를 비롯하여 피아노, 냉장고, 선풍기, 침대, 책상, 의자, 찬장, 카페트 등이 지급된다. 따라서 이사갈 경우 비품은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부부장급 이상의 특별주택에는 보통 식모와 운전수, 유모 등이 배속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국가기구」에 포함된 인민경제 노력이며 배치된 고용인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하나의 직장 근무인이다. 또한 특별주택에 배치된 식모, 유모, 운전수 등은 주인과 하인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국가공무원」의 입장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할 수도 있으며 특히 부부장급이나 부장급 주택에 파견된 고용인들은 주인을 감시하는 비밀임무를 띠기도 한다.

② 4호 주택:방 2~3개이며 수세식 변소 및 목욕탕, 냉온수시설, 베란다 등의 시설을 갖춘 신형고층아파트이다.

세대당 15평 내외이며 입주자는 중앙당 과장급이상, 정무원 국장급 이상, 대학교수, 문예인 간부들이다.

③ 3호 주택:방 2, 부엌 1, 창고 반칸, 변소로 되어 있는 아파트이다. 궁륭식, 즉 중간 복도식의 아파트와 일부 섹찌아식 아파트가 이런 규모이다. 3호주택의 방2칸은 모두 온돌방이며 각기 벽장이 있고 도로변에 면한 방은 베란다가 붙어 있다. 방한칸의 크기는 2평 내외이고 폭 1.5미터, 길이 3~5미터의 복도가 달려 있다. 3호 주택은 각 층과 각 방마다 급수 배수관이 시설되어 있는데 수압관계로 4층 이상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 결함이 있다. 아파트 비품으로는 침대·책상·의자 등을 비치한 곳이 많으며 각 층마다 쓰레기 버리는 장치가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설만 갖추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여 무용지물일 때가 많다. 또한 중견간부가 입주하는 3호 주택은 더욱 언동에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은 간부들일수록 상호 감시와 경계의 도가 높기 때문이다.

④ 2호 주택:방 1.5, 부엌 1의 규모를 가진 아파트이다. 신 외랑식 아파트와 일부 궁륭식 아파트에 이와 같은 규모가 많으며 2.5~3평 가량이다. 내부시설은 벽에 부착된 벽장 뿐이고 입주자 자신들이 선반을 매어 사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수도, 변소시설이 되어 있으나 급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공동변소와 가변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 1호 주택 (집단공영주택 및 구옥, 농촌문화주택): 북한에서 주로 아파트를 규모와 실내장식 여하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서 보통 방 1, 부엌 2분의 1주택을 말한다.

일반 노동자와 사무원용으로 지은 주택으로 외랑식 아파트가 이에 속한다. 방은대략 1.5~2평 정도이며 현재 1호 주택은 전체 도시 주택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불편하고 비좁은 주택이지만 1호 주택배정을 받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기거해야 하는 신혼부부들도 많다. 또한 모두가 조립식에 의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벽의 블록이 너무 얇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사생활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타

공장 사택

북한에서는 공장지구 인근의 주택은 거의 공장사택이다. 직장장, 기사급 이상이 거주하는 것과 그 이하급 종업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장장 기사급 이상이 거주하는 사택은 방 2, 부엌 1,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 종업원의 사택은 방 1, 부엌 1이며 목욕탕, 변소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대규모의 공장, 기업소 사택지구를 노동자구로 명명한 곳이 많다.

공장사택은 공장관리부에서 관장하며 사택 지구 파견소가 상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부족으로 인하여 1세대용에 2세대를 수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장 합숙소

북한의 중앙지도대상 공장 기업소와 일부 지방공장들에서 직영하는 독신 종업원들을 수용하는 합숙소를 말한다. 남성 독신자 합숙, 여성 독신자 합숙, 혼성 독신자 합숙소가 있다.

공장 후방부 지배인의 관장 아래 운영되고 있는데 합숙소

에는 사감, 관리주임, 관리원 2~3명, 식당주임, 취사장, 취사원 3~5명, 경리주임, 경리원 등이 있다.

공장 합숙소 입소와 퇴소 절차는 공장 종업원 가운데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로서 자기가 속한 직장장이 연명한 입소 신청서를 합숙사감에게 제출하면, 입소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와 입소 신청자의 지위와 정치적 비중에 따라 빈자리가 생기는 대로 입소시킨다. 이때 입소 신청자는 식량 배급표와 1개월 합숙비를 제출하고 식권을 받아 입소한다. 퇴소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식량배급 정지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퇴소한다.

북한의 공장합숙소는 대개 그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1개 호실에 4~5명을 수용하므로 매우 불편하다. 규모 역시 공장 종업원 수에 비하여 너무 작아서 입소신청을 하고도 1~2개월씩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다.

외랑식 아파트

북한이 조립식 건설을 시작할 초기에 많이 지은 건물로서 일반 노동자와 사무원용으로 다량 건설한 아파트이다. 각 층 마다 후면으로 단일복도가 설치되어 있고 긴 단일복도에 따라 방이 줄지어 있다. 방의 크기는 1.5평~2평 정도로 좁은 온돌방이다. 또한 급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부들은 연탄재를 버리는 일과 물을 길어 올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아파트 뒷마당에 김장독을 묻게 되어 있지만 보통 80~100세대가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독을 묻을 장소가 없어서 고심하고 있다. 외랑식 아파트는 특히 상호감시·통제가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이웃을 경계해야만 한다.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와 신외랑식 아파트라 하여 종전의 아파트보다 개선된 것을 건설했으나 규모나 내부시설은 차이가 없고 다만 조그만 베란다를 각 세대마다 설치했을 뿐이다.

궁륭식 아파트

궁륭식 아파트는 각층마다 층간에 긴 단일 복도가 있고 그 복도 좌우에 방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로서 일명 중간 복도식 아파트라고도 한다. 궁륭식 아파트는 보통 방 2칸에 부엌 1칸의 규모로 되어 있는데 주택난으로 여기에 두 세대가 살도록 하는 예가 많다. 궁륭식 아파트는 모두 스팀장치가 되어 있고 2.5평 내지 3평정도의 방은 전부 다다미 방이다. 스팀 장치가 되어 있어 취사시 석유를 사용하는데 석유구입이 쉽지 않아 세끼밥짓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섹찌아」식 아파트

섹찌아는 소련어로서「부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섹찌아식 아파트는 한 개의 현관으로 올라가며 각 층마다 2세대 혹은 3세대씩 연결된다. 따라서 한 아파트에는 이런 현관이 다섯개 내지 여섯개씩 있게 되며 출입구가 다른 이웃세대와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 현대식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형식인데 비하여 전체 아파트 중 섹찌아식 아파트의 비율은 매우 적으며 주로 간부용으로 사용된다. 한 세대당 방 2개(온돌 1, 마루방 1, 혹은 두개 모두 온돌)와 부엌하나, 창고, 변소를 갖춘 것이 있고 방 세개의 규모인 것도 있다. 스팀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벽이 두꺼워 방음이 되는 편이다. 그러나 비교적 현대식 문화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다. *